

## News

### 금리인상 덕 본 금융그룹, 이자마진에 1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지주들, 올 1분기 순이익에도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것 전망…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 때문  
향후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예고되며 한은 기준금리 더욱 높아질 것 예상… 또한 윤석열 정부 하 부동산 규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금리인상 와중에…KB, 대출금리 최대 0.55%p 인하, 왜?

이데일리

KB국민은행,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5%p, 0.55%p씩 인하할 계획… 지난달 7일 인하에 이어 추가 인하  
변동으로 주담대 고정금리(1등급, 5년이상 가정) 3.56~5.06%로 하락…연초 가계대출 부진 영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확대 비판 영향으로 해석

### 하나·농협은행도 4일부터 적격대출 판매

조선비즈

하나·농협은행,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 판매 시작… 주담대 고정금리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연3%대 고정형 상품인 적격대출에 수요 몰릴 것으로 전망  
일찍 한도가 동날 수 있다는 예상… 1일 우리은행의 적격대출 판매 개시 후 첫날에만 2분기 한도 1,000억원 중 30% 이상 소진… 이번에는 분기별 한도 설정해 상대적으로 여유

### 토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출시 한달반만에 2천억원 돌파

연합뉴스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잔액이 출시 한달 반만에 2천억원 넘어서… '사장님 대출' 잔액 31일 기준 2,095억원, 2월 말 대비 197.5% 증가  
운수업 종사자 등 기존 증빙 소득으로 신용도 평가받기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 계층 포용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 케이뱅크, 18일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출시 예정

### 보험 영역 허문 흥국생명,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도 보상한다

머니S

생보사, 손해보험업 고유 영역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에 손대기 시작… 흥국생명,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상하는 상해보험 출시해 영역 파괴 나서…  
이달 중 출시 예정… 이번 성과로 다른 생보사들에게도 영향 미칠 예정… 매출 증대와 고객 정보 수집 등 두 마리 토끼 확보 가능

### 보험사, 금리 상승기에도 자본확충

보험매일

메리츠화재, 1일 신종자본증권 700억원을 이자율 4.6%에 발행하기로 공시… 2020년 11월 1,050억원에 이어 1년 반만에 다시 신종자본증권으로 확충 나서…  
새 자본규제 K-ICS에 따라 필요 자본 마련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 상당한 부담 가능성에도 시장금리 상승세 지속도 전망되어 자본확충에 서두르는 모습

### 미래에셋 신남방 전략 거점 자리잡은 홍콩…추격하는 NH·한투

데일리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성적 두드러지며 신남방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아… 최근 홍콩거래소 주최 KNEX Awards 2021에서 ETF 거래금액, 설정 및 환매 부문에서 최우수 선정  
동사는 홍콩에서만 3,451억원의 영업이익 거둬… 강점 있는 서비스에 현지 평판도 좋은 영향…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홍콩 내 입지 다지기에 속도전

### 이번 없었다…43조 주택도시기금 OCIO에 미래에셋운용·NH투자증권

한국경제

OCIO 시장의 대어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 최종 선정… 4년마다 증권사와 운용사 리그에서 전담 1곳씩 선정  
NH투자증권은 종합평점 87.9741점을 받아 한국투자증권을 3.6314점 차이로 앞서… 약 4년간 42조 6,797억원의 운용 맡아… 예상 위탁운용규모로 증권사는 19조 7,855억원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